법관 기피 신청

사건 2006초기3061 [조귀장](#) 법관 기피신청(서울형사 항소 1부 나, 이강원 판사)
피고인 김명호,

위 법관 기피 신청에 관하여(이하 ‘이사건’),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에 따라 법관기피신청 합니다.

신청 취지

“이사건 법관 이강원을, 2006초기3061 [조귀장](#) 법관 기피신청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기피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이사건은 명백한 ‘신청’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경’ 전문 재판부로 지정된, 서울중앙지법 항소 1부로 배정된 점.
2. 항소 1부 재판장 이강원은 성균관 대학 출신이고, 이 사건 본안 사건은, 판사들을 비난했다는 혐의의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판사들을 비난했다는 사건은, 피고인의 교수지위확인 사건과(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7421, [서울고법 2005나84701](#)) 관련된 것으로, 그 피의 판사들 중 성대 출신 판사 [이혁우](#)가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수지위확인사건의 피고가 성균관 대학이라는 점.

결론: 따라서, 성대출신의 판사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기피신청 합니다. ‘신청’으로 분류된 전문 재판부로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0. 17

위 피고인 김명호

서울중앙지법 항소 1부 귀중